문화가 현장 베일 벗은 창작뮤지컬 '부종휴와 꼬마탐험대'

무대 꽉 채운 아이들 열정 고스란히

70여년 전 신비한 만장굴 탐험으로 시간여행
시민 주축 새로운 제주콘텐츠 뮤지컬 탄생 주목
객석과 무대 경계 허물며 관객과 소통나서 눈길
만장굴 현장감 표현한 다양한 무대연출 돋보여

지난 3일 창작 뮤지컬 '부종휴와 꼬마탐험대'가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베일을 벗고 관객과 만났다. 사진은 리허설 모습. 제주시청 제공

또 하나의 제주콘텐츠 뮤지컬이 무대에 올려졌다. 제주시뮤지컬아카데미 단원과 김녕초 학생 등 제주의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시민과 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 의미를 더하는 창작 뮤지컬 '부종휴와 꼬마탐험대'다.

지난 3일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베일을 벗고 관객과 만난 뮤지컬 '부종휴와 꼬마탐험대'는 5막으로 구성된 약 90분의 러닝타임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20여명의 청소년 배우들이 이끌며 무대를 가득 채웠다.

부분적으로 음정, 박자에서 다소 불안정한 음색을 드러내 아쉬웠지만 연기는 자연스러웠다. 그동안 연습한 치열한 노력과 열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관객들은 그들의 활약에 격려의 박수로 호응했다.

제주시가 창작 뮤지컬 '만덕'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인 뮤지컬 '부종휴와 꼬마탐험대'는 1946년 당시 김녕국민학교 교사였던 부종휴 선생과 제자인 '꼬마탐험대'가 처음 만장굴을 탐험했던 이야기를 재현한다. 강순복 작가의 동화 원작을 토대로 총감독(연출, 대본)을 맡은 소프라노 강혜명이 각색했다.

'부종휴와 꼬마탐험대'는 본 공연에 앞서 지난 10월 2022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만장굴 아트프로젝트에서 쇼케이스 형식으로 관객과 마주한 바 있다. 약 1㎞의 만장굴 일반 공개구간을 무대이자 객석으로 바꿔 바로 눈앞에서 생생한 공연을 즐길 수 있었던 실경공연으로, 만장굴의 현장감과 자연이 빚은 무대가 깊은 울림을 안겨줬다.

그 울림은 극장에서도 재현됐다. 홀로그램막 등 4개의 막을 적절히 사용하며 정형화된 극장의 한계 속에서 무대 위에 만장굴의 신비로움과 깊이감을 표현해냈다. 군더더기 없는 빠른 장면 전환에, 풍성한 시각적 볼거리를 선사한 연출은 돋보였다.

배우가 객석과 오케스트라 피트(연주자 공간)에서 등장하는 등 기존 무대를 확장하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과 소통하려 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이날 실제 '꼬마탐험대'에 참가한 김두전 씨와 부종휴 선생의 아들 부지석 씨도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인사하며 눈길을 끌었다.

올해 첫선을 보인 뮤지컬 '부종휴와 꼬마탐험대'는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까. 제주시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뮤지컬 아카데미를 통해 양성된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창작뮤지컬 제작·공연 관련 예산(1억3000만원)을 편성했고, 현재 제주도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민속자연사박물관 새단장 상설전시실 일부 전면 개편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낡고 오래된 상설전시실 일부를 새로운 콘텐츠로 전면 개편해 관람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개편한 공간은 2민속전시실(320㎡)과 자연사전시실 골격코너(66㎡)로, '제주의 사계(四季)'와 '야생동물과 함께'라는 주제관으로 재탄생했다.

'제주의 사계(四季)'에서는 봄부터 겨울까지 매년 행해진 제주지역만의 특색 있는 생활문화상을 유물과 영상자료로 소개한다. 전시의 몰입도를 높이고 심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열장마다 계절별로 고유의 색채를 입혔으며, 전시물이 부각되도록 현대적인 디자인을 도입했다.

'야생동물과 함께'는 제주에 생존하는 다양한 야생동물의 생태를 소개하는 전시다. 야생동물의 박제와 골격표본을 통해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새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체험물도 설치했다.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이번 전시 개선으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자료와 내용도 충실히 보강했다"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전시 개선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김창열 화백 추모전 '시선' 6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6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김창열 화백 추모 기획전 '시선'을 1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김 화백의 차남 김오안 감독이 아버지의 인생과 예술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제작한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와 가족의 시선을 연계한 전시로, 총 1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오안 감독이 바라본 아버지는 남다른 사람이었지만 아들 역시 아버지와 같은 기묘함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특히 아들에게 있어 아버지의 침묵은 자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다. 아들은 영화를 통해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하고 마침내 아버지의 삶을 자신의 시선으로 풀어냈다.

유복한 의사 집안의 딸로 동양인 화가의 아내가 된 마르틴 여사의 시선, 불문학자인 큰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본 시선까지 더해 기존의 물방울에 더욱 풍성한 해석을 입혔다.

김창열미술관 최형순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가족의 시선으로 바라본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과 예술세계를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빈 구덕에 바람 담아 돌아오는 길"

민속학자 고광민 선생 출판 기념 시화전
오는 9~23일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서

김세홍 작품

고광민 선생 출판 기념 시화전, "빈 구덕에 바람 담아 돌아오는 길"이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대표 고경대)에서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민속학자 고광민 선생은 스스로를 서민생활사 연구자로 자처하면서 제주는 물론 한반도, 일본, 동아시아의 서민 생활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의 연구 영역을 확대해 왔다.

선생의 연구는 문자 기록을 남기지 못한 서민들의 삶을 답사와 증언으로 채우기 위해 발로 뛴 현장의 기록이기에 더욱 뜻깊다.

특히 2020년 롯데출판대상 본상을 수상한 '제주생활사'(2016년 출간)는 제주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며, 제주 인문, 사회, 문화계를 망라한 많은 전문가와 후학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고희를 넘어선 선생은 아직도 현장과 연구실을 넘나들고 있으며 그러한 열정의 결실이 도서출판 한그루에서 출간된 '제주 도구'(2022년 12월 출간)이다.

이번 시화전은 선생의 출판을 기념하는 전시로 후배들과 큰바다영 그리고 도서출판 한그루에서 자발적으로 꾸린 행사이다.

오후 6시에 시작되는 본 행사는 '제주의 소리꾼 문석범'과 '첼로를 통해 제주의 소리를 이어가는 문지윤'의 음악공연으로 열어나간다. 이후 한진오의 진행으로 '제주 도구' 책 소개와 고광민 선생과의 대화, 그리고 사인회가 이어지고, 전시는 강덕환, 김경훈, 김세홍, 김수열, 송기남, 한진오가 제주어로 쓴 시와 과거 제주의 기록 사진을 수묵화로 옮긴 고승욱의 그림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瀛(제주시 만덕로 11번지 2, 3층, 매주 월요일 휴관). 조상윤기자

신성동문합창단 4년의 여백을 채우다

오는 7일 문예회관서 세 번째 정기연주회

신성동문합창단(단장 임정렬)이 오는 7일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세 번째 정기연주회 '그리움 그 여백'을 연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열리는 정기연주회다.

이날 신성동문합창단은 '인생은 소풍' '제주의 숨결' '행복한 동행' 등을 주제로 '서시' '바람은 남풍' '귀천' '흰눈' '해녀의 삶' '이여도' '행복을 주는 사람' '걱정말아요 그대' 등을 들려준다.

합창단은 관객들과 보다 즐기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라인 댄스(Line Dance) 무대도 준비했다. 여기에 특별출연하는 바리톤 김승철, 바순 김숙연의 무대가 풍성함을 더한다.

임정렬 단장은 "버거운 삶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름다운 화음의 맛, 수줍은 낭만의 멋, 그 설렘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초대장을 띄웠다. 오은지기자